

Lesson 05 회중점점 모의고사 1회

pp. 60~63

- 01 ④ 02 ② 03 up close 04 ⑤
 05 go straight 06 ④ 07 ③ 08 ①
 09 ③ 10 ④
 11 ⑥ I saw the guard checking[check] their bags.
 ④ The songs that[which] she sang made everyone excited.
 12 ③ 13 She felt the rain falling on her head.
 14 ① 15 ④ 16 ④ 17 that[which] I tried
 18 ④ 19 saw people copying 20 ⑤ 21 ⑤
 22 ⑤ 23 ⑤
 24 You can also see bands playing music. 25 ⑤

- 01 ①②③⑤는 반의어 관계이고, ④는 '꽤, 상당히'라는 뜻으로, 유익어 관계이다.
 ① 멀리 : 가까이 ② 앞으로 : 뒤에
 ③ 안전한 : 안전하지 않은 ⑤ 쉽게 잊혀질 : 잊을 수 없는
- 02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다'는 spend ((시간을) 보내다)의 영영풀이다.
 ① 우리는 저녁으로 피자 두 판을 주문했다.
 ② 우리는 작은 섬에서 휴가를 보냈다.
 ③ 물품 두 개를 사면 하나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④ 내 여동생은 매주 주말에 댄스 수업에 다닌다.
 ⑤ 그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
- 03 빈칸에는 '가까이에서'라는 뜻의 부사구 up close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04 ⑥는 '이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라는 뜻으로 '추천을 부탁하는 표현'인 반면, ⑤의 Why don't you ~?는 '~하는 게 어때?'라는 뜻으로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표현이다.
- 05 go straight: 곧장 앞으로 쪽 가서
- 06 ④ 대화에 소녀가 식당이 멀다고 말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남자가 It's not far from here.라고 하며 식당이 가깝다고 말했다.
- 07 ③은 '그 음식들은 정말 비싸요.'라는 뜻으로, 앞에서는 상대에게 길거리 음식을 추천하며 먹어 보라고 제안하는 내용인데, 곧바로 '비싸다'고 말하면 추천의 의도와 어긋나 대화의 흐름상 어색하다. They're really good.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 08 ⑥는 How about ~?, What about ~?, Why don't you ~?, Would you like to ~?처럼 제안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①은 '내가 먹어 봐도 될까요?'라는 의미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 09 '우리가 본 영화'는 the movie that we watched로 표현한다. 관계대명사 that은 사람과 사물 모두 가능하며, 시제는 봤다(watched)이므로 과거형을 써야 한다.
- 10 첫 번째 빈칸은 「see + 목적어 + 현재분사[동사원형]」의 5형식 문장이고, 두 번째 빈칸은 「be동사 + -ing」의 현재진행형 문장이므로 smiling이 들어가야 한다.
- 11 ⑥ to check → checking[check]
 ④ whom → that[which]
 ③ 우리가 방문했던 도시는 멋졌다.
 ⑥ 나는 경비원이 그들의 가방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③ Chloe는 개가 밤새 짖는 것을 들었다.
 ④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모두를 신나게 했다.

- ⑥ 나는 우리 선생님이 초대한 가수를 만났다.
- 12 ③ [him 삭제], 관계대명사 that이 이미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him을 쓰면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① 나는 새들이 나무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② 우리는 홀에서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③ 내가 오늘 만난 그 남자는 내 삼촌이다.
 ④ 그녀가 내게 준 선물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⑤ 내가 어제 산 책은 매우 흥미롭다.
- 13 지각동사 felt 뒤에는 to부정사가 아니라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이 온다. 이 문장은 '비가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의미이므로, felt the rain falling이 알맞다.
- 14 (A) Last summer라는 과거 시점 부사가 있으므로 spent가 알맞다.
 (B) 앞 문장이 현재시제이므로 has가 알맞다.
 (C) lie (눕다)의 과거형은 lay이다. lied는 lie (거짓말하다)의 과거형이다.
- 15 뉴욕의 고층 건물과 아름다운 공원 (센트럴 파크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뉴욕이 '강아지 키우기 좋은 장소'라는 내용은 없다.
- 16 ⑥와 ④는 '무료의'라는 뜻으로 쓰였고, ①은 '~이 없는', ②는 '자유롭게 하다', ③⑤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① 이 주스는 무가당이다.
 ② 그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③ 어떤 질문이든 자유롭게 해도 된다.
 ④ 이 쿠폰으로 무료 음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자유롭게 행복하다고 느꼈다.
- 17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관계대명사 which[that]을 쓴다.
- 18 ⑥ 앞의 명사구 many famous works of art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야 하므로 that 또는 which가 올 수 있다.
 ⑥ 동사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
- 19 「see + 사람 + 현재분사」 형태는 '~가 ...하는 것을 보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에 맞게 과거시제 saw people copying으로 쓴다.
- 20 ⑤ 글쓴이가 박물관에 언제 방문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① 글쓴이는 어떤 박물관들을 방문했는가? (→ the Met와 MoMA)
 ② 글쓴이는 미술책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많은 유명한 예술 작품들)
 ③ 글쓴이는 어디에서 Vincent van Gogh의 그림들을 보았는가? (→ the Met)
 ④ 글쓴이는 Edgar Degas의 어떤 그림을 따라 그렸는가? (→ <Dancer>)
 ⑤ 글쓴이는 박물관에 언제 방문했는가? (→ 알 수 없음)
- 21 ⑤ At that moment: 그때, 바로 그 순간
- 22 ⑥와 ①~④는 전치사로 '~처럼'의 뜻을 가지지만, ⑥는 '좋아하다'로 동사로 쓰였다.
 ① 그는 전문 가수처럼 노래한다. ② 그는 아이처럼 행동했다.
 ③ 이것은 초콜릿 맛이 난다. ④ 그녀는 어머니를 닮았다.
 ⑤ 그들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 23 ⑤ '공연이 끝난 시각'은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24 조동사 can 뒤에 동사 see를 쓰고, 목적어 bands를 쓴다. 그 뒤에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 playing을 쓴다. '또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also를 조동사 뒤에 쓴다.
- 25 글에 자전거 타기, 밴드 공연, 라면 먹기 등의 내용은 나오지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1 ② 02 ④ 03 (c)lose 04 ⑤
 05 ⑤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The woman who(m) I met yesterday was very kind.
 11 ⑤ 12 ⑤
 13 The movie which[that] they watched in the morning was interesting.
 14 ⑤
 15 (1) |예시답안| 무료 요가 수업 참석
 (2) |예시답안| 호수 위 보트에서 노 젓기
 (3) |예시답안| 잔디 위에 눕기
 (4) |예시답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보기
 16 lied → lay 17 ④ 18 ⑤ 19 ⑤
 20 ㉠ toppings ㉢ copying 21 ⑤
 22 the most unforgettable moment
 23 I knew I would never forget this amazing city.
 24 ③ 25 ①

- 01 ②는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 ①③④⑤는 모두 명사이다.
 ① 베이글 ③ 호수 ④ 정글 ⑤ 조화
- 02 ④ shine은 ‘빛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표지판, 간판’을 나타내는 단어는 sign이다.
- 03 up close: 가까이에서
 • 사자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커 보였다.
 • 나는 그의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 04 ①②③④는 모두 시티투어버스를 타는 것이 어떤지 추천하는 표현이고, ⑤는 ‘그곳에 가는 최선의 방법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라는 의미로 요청하는 표현이다.
- 05 ‘물론이지! 스시는 어때?’라며 음식을 추천하는 응답이 나오고 있으므로 ⑤ ‘나에게 유명한 일본 음식을 추천해 줄 수 있나?’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 06 주어진 문장은 ‘그것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의미로 박물관의 위치에 대해 마무리하는 설명이므로 길 안내의 마지막 문장으로 ④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07 Mike가 온라인 지도를 확인한 후 거의 다 왔다고 말했으므로 목적지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지각동사는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을 쓴다.
 • 나는 그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 09 ③은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①②④⑤는 모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① 나는 나의 아빠가 집필하신 책을 읽었다.
 ② 그녀는 나의 이모가 지은 집에 갔다.
 ③ 나는 독서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를 알고 있다.
 ④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가 개발한 기계를 알고 있다.
 ⑤ 그들은 그들이 오늘 방문해야 할 사무실로 뛰어간다.
- 10 선행사가 사람인 The woman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m)을 써서 영작할 수 있다.
- 11 ⑤ [melted → melting[melt]], feel은 지각동사이므로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① 그들은 건물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② 그는 김치가 점점 시어가는 냄새를 맡았다.
 ③ 우리는 수프가 상해가는 맛을 느꼈다.

- ④ 나는 커플이 바깥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⑤ Ann은 가방 안에서 초콜릿이 녹고 있는 것을 느꼈다.
- 12 ⑤ 선행사인 The teacher가 사람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m)나 that을 써야 한다.
 ① [shook → shaking[shake]]
 ② [to dance → dancing[dance]]
 ③ [which → who(m)[that]]
 ④ [whom → which[that]]
 ① 그들은 도로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② 그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③ 내가 쳐다보고 있는 소녀는 나의 딸이다.
 ④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제 구입한 자동차를 보냈다.
 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은 김 선생님이다.
- 13 선행사가 사물인 The movie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ich나 that을 써서 영작할 수 있다.
 • 그들이 아침에 본 영화는 흥미로웠다
- 14 지각동사 watch는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을 쓰므로 to pass를 passing이나 pass로 고쳐 써야 한다.
- 15 ㉠ there는 Central Park를 지칭하고, ㉢ 뒤에 그곳에서 한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다.
- 16 문맥상 잔디 위에 ‘눕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고, ‘눕다’를 뜻하는 lie의 과거형은 lied가 아니라 lay이다.
- 17 빈칸 앞에 나온 선행사가 모두 사물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which나 that이 적절하다.
- 18 다른 사람들이 Edgar Degas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을 보고 글쓰기도 따라 그렸으며 그것은 꽤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내용이다.
- 19 ⑤ Vincent van Gogh의 그림을 따라 그린 것이 아니라 Edgar Degas의 그림을 따라 그렸다.
- 20 ㉠ 20개 이상의 토핑이 있었다고 했다.
 ㉢ 사람들이 Edgar Degas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 21 주어진 문장은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크고 화려한 광고판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뮤지컬을 본 이후의 감정이다. 따라서 ⑤의 위치에 들어가 이 놀라운 도시를 절대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는 감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22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최상급을 활용해서 ‘the most +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잊지 못하는’은 unforgettable로 쓴다.
- 23 ‘~할 것임을 알았다’는 I knew로 표현하고, ‘이 놀라운 도시’는 this amazing city로 표현한다.
- 24 뮤지컬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이 놀라운 도시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③ ‘감동을 받은’ 심정임을 알 수 있다.
 ① 화가 난 ② 질투하는
 ④ 겁에 질린 ⑤ 혼란스러운
- 25 ① 글쓰이는 브로드웨이에서 <The Lion King>을 관람했다.
 ② 글쓰이는 아프리카 정글에 가 본 적이 있다. (→ 알 수 없음)
 ③ 무대 위에는 실제 동물들이 있었다. (→ 배우들이 실제 동물처럼 공연함)
 ④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오직 춤만 쳤다. (→ 춤추고 노래함)
 ⑤ 글쓰이는 모든 장면에서 많이 웃었다. (→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음)

- 01 are ready to 02 ① 03 ①
 04 ⑤ 05 ⑤
 06 go straight ahead and turn right
 07 ③ 08 ②, ③ 09 ④
 10 She felt the rain hitting her umbrella.
 11 ① 12 ③ 13 ③
 14 ② 15 ③
 16 [예시답안] 내가 먹어 본 토핑들 중에
 17 which[that] I saw in art books
 18 ① 19 ④ 20 unforgettable
 21 ① 22 I felt tears rolling[roll] down my face
 23 ⑤ 24 ③ 25 ④

- 01 be ready to: ~할 준비가 되다
 02 ⑥ 뉴욕시는 고층 건물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⑥ 나는 동시에 개 열 마리를 산책시킬 수 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03 ① quite는 '꽤, 매우'를 의미하는 부사이므로 small을 large로 바꿔야 한다.
 ② 전체의, 모든: 어떤 것의 전부
 ③ 소비하다: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다
 ④ 잘못된: 옳지 않거나 진실이 아닌
 ⑤ 잊을 수 없는: 잊는 것이 불가능한
 04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는지 묻고 있으므로 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⑤ '직진을 해서 오른쪽으로 도세요.'가 가장 적절하다.
 ① 행운을 빌어요. ② 천만에요
 ③ 좋은 하루 되세요 ④ 흥미롭게 들려요.
 05 빈칸 뒤에 훌륭한 해산물 식당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는지 '추천해' 달라는 의미가 적절하다.
 ① 보다 ② 시도하다 ③ 도와주다
 ④ 방문하다 ⑤ 추천하다
 06 '곧장 직진하라'는 go straight ahead로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라'는 turn right로 쓴다.
 07 ③ 남자가 아니라 소녀가 식당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08 목적격보어 자리에 현재분사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지각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have와 make는 사역동사이므로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09 ④의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①②③⑤의 that은 모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 가능하다.
 ① 그 남자는 내가 작년에 만난 사람이다.
 ②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한 그 가수는 매우 유명하다.
 ③ 나는 나의 엄마와 함께 읽은 그 책을 좋아한다.
 ④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는 그 남자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⑤ 그들은 내가 어제 본 영화를 즐겼다.
 10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어순으로 쓰되, 지각동사 feel은 과거형인 felt로 쓰고,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인 hitting을 써서 영작할 수 있다.
 11 주어는 '남자'이므로 The man으로 쓰고, '그녀가 인터뷰한'이라는 의미로 The ma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인 she interviewe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12 ③ [to play → playing[play]], 지각동사는 목적격보어 자리에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을 쓴다.
 ① 나는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았다.
 ② 나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③ 그들은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 ④ 우리는 강아지가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⑤ 어린이들은 새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13 세 번째 문장: [The men are → The men who[that] are],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없다.
 다섯 번째 문장: [who → which[that]], 선행사가 사물인 The song이므로 which나 that으로 써야 한다.
 • 나는 내가 온라인에서 구입한 타자를 좋아한다.
 • 그는 내가 나를 위해 구입한 초콜릿을 먹었다.
 • 지나쳐간 그 남자들은 나의 이웃들이다.
 • 나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제 본 집을 지으셨다.
 • 내가 듣고 있었던 노래는 매우 유명하다.
 14 (A) 지난여름, 뉴욕시의 사촌 집에서 한 달을 보내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는데 (C) 뉴욕시는 고층 건물로 유명하지만 아름다운 공원과 있고 (B) 센트럴 파크 근처에 사촌의 아파트가 있어서 자주 그곳에 갔었다는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15 ① 글쓰이는 지난여름에 뉴욕에 갔었다.
 ② 글쓰이는 뉴욕에서의 경험들을 잊지 못했다.
 ③ 뉴욕은 아름다운 건물들로 유명하다. (→ 고층 건물로 유명함)
 ④ 글쓰이는 센트럴 파크에서 요가 수업에 참여했다.
 ⑤ 공원의 어떤 사람은 열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켰다.
 16 among은 '~ 중에'라는 의미이고, try는 '시도하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먹어 보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선행사 the topping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을 이끌고 있다.
 17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ich나 that을 사용할 수 있다.
 18 지각동사 see는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을 쓴다.
 19 ④ 기념품을 구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0 잊을 수 없는: unforgettable
 21 harmony는 '조화'라는 의미이므로 ① '서로 다른 것들이 잘 어우러진 상태'가 알맞은 영영풀이이다.
 ② 많은 식물들이 있는 매우 뾰족한 숲속 → jungle (밀림)
 ③ 연결되거나 연관된 상태 → relationship (관계)
 ④ 이야기, 소설, 영화 등의 주요 인물 → hero (주인공)
 ⑤ 땅으로 둘러싸인 넓은 물의 영역 → lake (호수)
 22 지각동사 feel은 「feel +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어순으로 쓴다. 과거시제이므로 feel은 felt로 쓰고, 목적격보어는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을 취하므로 rolling down 또는 roll down으로 영작할 수 있다.
 23 ⑥ 지각동사 see는 목적격보어로 현재분사나 동사원형을 쓴다.
 ⑥ '반드시 ~해라'는 「make sure to + 동사원형」으로 쓴다.
 24 ⑥와 ③의 by는 '~ 옆에'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였다.
 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로, ~을 이용하여)
 ② 그들은 부산까지 비행기로 여행할 것이다. (~로, ~을 이용하여)
 ③ 창문 옆의 탁자에 앉아도 되나요? (~ 옆에)
 ④ 5시까지 일을 끝낼 수 있나요? (~까지)
 ⑤ 이 책은 알려지지 않은 작가에 의해 쓰였다. (~에 의해)
 25 ④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직접 연주를 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⑤ 06 ㉠ - ㉢ - ㉡ - ㉣
 07 ④ 08 |예시답안| 자신의 가판대를 떠날 수 없어서
 09 ⑤ 10 was, by her 11 ①
 12 ④ 13 ⑤
 14 potatoes were first grown by people in the Andes mountains region
 15 ① 16 ② 17 ③
 18 ② 19 ② 20 ①
 21 shortage 22 ⑤
 23 |예시답안| 왕과 왕비가 각각 재킷과 머리에 감자꽃을 꽂는 것
 24 were finally accepted 25 ④

- 01 ④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과 부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shortage(부족)를 effort(노력)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지 마라.
 ② 나는 어젯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③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⑤ 그는 질병 때문에 학교에 결석했다.
- 02 ③의 curious는 ‘궁금한’이라는 의미이고, ‘한 나라의 왕이나 여왕과 관련된, 또는 그들에게 속한’은 royal(국왕의)에 어울리는 영영풀이이다.
 ① 성공적인: 좋은 결과를 가지거나 목표를 달성한
 ② 받아들이다: 제공된 것을 기꺼이 취하다
 ④ 지키다: 재산, 장소 또는 사람들을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다
 ⑤ 관리, 공무원: 조직에서 권한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 03 • 우리는 내일 전에 더 나은 계획을 생각해 내야 한다. (come up with: ~을 생각해 내다)
 • 미래에는 로봇이 많은 단순한 일자리를 장악할지도 모른다. (take over: 장악하다, 정복하다)
- 04 밑줄 친 부분과 ①③④⑤는 모두 ‘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니?’의 의미로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고, ②는 ‘너는 도움이 필요하니?’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안하는 표현이다.
- 05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 말에 내일 큰 시험이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부탁을 거절하는 ⑥가 알맞다.
 ① 물론이죠.
 ② 기꺼이 도울게요.
 ③ 그거 좋겠어요.
 ④ 그것에 대해 걱정이예요.
 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 06 B: 엄마, 저 집에 왔어요! - ㉠ 안녕, Sam. 막 카레라이스를 만들기 시작했단다. - ㉡ 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 ㉢ 음, 이 당근이랑 감자 좀 썰어 줄래? - ㉣ 물론이죠, 문제없어요.
- 07 주어진 문장은 ‘그런데,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의미이므로 Sure.(물론이죠.)라고 도움을 부탁하는 말에 수락하는 응답을 한 후, 구체적 인 부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 앞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다.
- 08 여자가 남자에게 상자들을 차로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남자는 I'm sorry라고 거절의 응답을 하며 가판대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09 ① 남자는 과일을 팔고 있다.
 ② 여자는 사과잼을 만들고 싶어 한다.
 ③ 그 사과들은 달고 잼 만들기에 좋다.
 ④ 여자는 사과 두 상자를 산다.

- ⑤ 남자는 여자를 위해 사과 상자를 옮겨 줄 것이다. (→ 여자가 카트를 이용해서 옮길 것임)
- 10 목적어인 the letter를 주어로 한 수동태는 「be 동사 + 과거분사」의 어순이므로 단수동사이고 과거시제에 맞춰 be동사를 was로 쓴다. 「by + 목적격」의 형태로 행위자를 나타내므로 주어 she를 by 뒤에 목적격인 her로 바꿔 써야 한다.
 • 그녀는 편지를 썼다.
- 11 빈칸 다음에 「목적어 + to부정사」가 쓰였으므로 빈칸에는 to부정사를 목적격보어로 취하는 ask, tell, order, advise가 올 수 있다. make는 사역동사이므로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쓴다.
- 12 ① [they → them] ② [his → him]
 ③ [of → by] ④ [were → was]
 ① 그 다리는 그들에 의해 지어졌다.
 ② 나는 그가 그 일을 끝내기를 기대한다.
 ③ 그 방은 그 소년에 의해 청소되었다.
 ④ 그 장교는 병사들이 멈추기를 원했다.
 ⑤ 그 수업은 선생님에 의해 설명되었다.
- 13 advise와 tell은 「동사 + 목적어 + to부정사」의 5형식 문장으로 쓰이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빈칸에는 to부정사가 들어가야 한다. to부정사의 부정은 to부정사 앞에 not을 쓰므로 세 번째 빈칸에는 not to stay가 알맞다.
 두 번째 빈칸에는 주어인 English가 speak의 대상이 되므로 「be동사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 is spoken이 알맞다.
 • 의사는 그에게 더 많이 운동하라고 조언했다.
 • 영어는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
 • 엄마는 나에게 늦게까지 깨어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 14 ‘처음 재배되었다’는 과거시제 수동태이므로 주어 potatoes 다음에 were first grown을 배열하고 행위자에 해당하는 ‘안데스산맥 지역의 사람들’은 by 다음에 people in the Andes mountains region을 배열하여 완성한다.
- 15 ㉠은 Spanish people을 가리키고 ㉡㉢㉣㉤은 모두 potatoes를 가리킨다.
- 16 빈칸 앞의 내용 ‘감자가 좋은 식량 자원이어서 유럽에 가져오게 되었다’와 빈칸 뒤의 내용 ‘감자가 환영받지 못했다’는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However(하지만, 그러나)’가 알맞다.
 ① 처음에 ③ 그러므로 ④ 예를 들어 ⑤ 결과적으로
- 17 ③ 스페인 사람들이 16세기에 안데스산맥 지역을 장악했을 때 감자에 대해 알게 되고 감자가 좋은 식량원이어서 유럽으로 가져왔다고 하였다.
- 18 ㉠ 앞의 food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 동사 wanted, ordered의 목적격보어
 ㉣㉤ 동사 tried, started의 목적어
- 19 감자를 왕실의 채소라고 이름 짓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감자밭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사람들에게 감자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① 지루한 ②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③ 충분한
 ④ 걱정스러운 ⑤ 배고픈
- 20 프로이센의 백성들이 먹기를 꺼려하던 감자를 재배해 먹도록 왕이 기지를 발휘하여 감자를 유행시킨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감자가 프로이센에서 어떻게 퍼졌는가’이다.
 ② 감자를 요리하는 다양한 방법
 ③ 감자의 유럽 도입
 ④ 병사들이 왕의 궁전을 지킨 이유
 ⑤ 프로이센 왕실 채소의 종류
- 21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shortage (부족)
- 22 thanks to: ~ 덕분에
- 23 밑줄 친 this royal fashion은 앞에 언급된 왕과 왕비의 패션으로, 왕은 재킷에, 왕비는 머리에 감자꽃을 꽂는 것을 가리킨다.
- 24 ‘마침내 받아들여졌다’의 의미이므로 수동태가 되도록 「be동사의 과거형 + 과거분사」의 형태로 고쳐 써야 한다.

- 25 ① 프랑스 사람들은 처음에 감자를 좋아했는가? (→ 좋아하지 않았음)
 ② 누가 루이 16세에게 프로이센의 성공 사례를 말했는가? (→ 정부 관료)
 ③ 왕은 재킷에 무엇을 달았는가? (→ 감자꽃)
 ④ 왕은 감자꽃을 어디서 구했는가? (→ 알 수 없음)
 ⑤ 사람들이 왕실 유행을 따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백성들이 감자를 좋아하게 되었음)

Lesson 06 회중점점 모의고사 2회

pp. 76~79

- 01 (d)ig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6 I'm sorry but I can't 07 ②
 08 ⑤ 09 ⑤
 10 He advised his student to exercise regularly.
 11 ③ 12 ④
 13 Her family was welcomed by them at the airport.
 14 ① 15 ④ 16 Potatoes Come to Europe
 17 ⑤ 18 ② → to grow 19 ⑤
 20 ③ 21 ②
 22 [예시답안] 재킷에 감자꽃을 꽃는 것 23 ④
 24 a accepted c vegetables 25 potatoes

- 01 dig up: ~을 파다, ~을 캐다
 02 문맥상 그는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했다'는 의미가 적절하다.
 ① 국왕의 ② (사물의) 원천, 근원 ③ 질병
 ④ 궁금해하는 ⑤ 노력들
 03 • Ann 덕분에 나는 나의 일을 끝낼 수 있었다. (thanks to: ~ 덕분에)
 •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give up: 포기하다)
 04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Can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05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가 나와야 하므로 ⑤ '내일 큰 시험이 있어요.'가 가장 적절하다.
 ① 저는 긴장돼요.
 ②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어요.
 ③ 제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④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06 문맥상 부탁을 거절하는 응답이 나와야 하므로 I'm sorry, but I can't ~로 표현할 수 있다.
 07 ① 여자는 사과즙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 (→ 사과)
 ② 남자는 달콤한 것을 추천했다.
 ③ 여자가 구입한 두 상자는 40달러이다. (→ 20달러)
 ④ 남자는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여자가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함)
 ⑤ 남자는 여자가 상자들을 옮기는 것을 도울 것이다. (→ 돕지 못함)
 08 주어진 문장은 '그 아기들이 쿠키를 먹었나요?'라는 질문이므로 ⑤ '네. 아기들이 그것을 먹었어요.'라는 응답이 가장 적절하다.
 ① 잘 익었습니다.
 ② 당신은 멋지네요.
 ③ 아기들이 먹고 있어요.
 ④ 아니요, 그들은 쿠키를 먹었어요.
 09 '에펠탑은 Gustave Eiffel에 의해 1889년에 파리에서 지어졌다.'는 의미가 되도록 'be동사의 과거형 + 과거분사' 형태의 과거시제 수동태로 써야 한다.
 10 '~에게 ...를 조언하다'는 'advise +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어순으로 쓴다. 과거시제이므로 advised로 쓰고, 목적격보어는 to부정사를 써야 한다.
 11 ③ [water → to water], tell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① 나의 노트북이 고장 났다.
 ② 그 사진들은 내 여동생에 의해 찍혔다.

- ③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꽃에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④ 그는 작년에 출장을 가기를 원했었다.
 ⑤ 제품은 전 세계로 광고될 것이다.
 12 동사 tell과 ask는 모두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취한다.
 13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이동한 후 'be동사 + 과거분사'의 형태로 쓴다. 과거시제이므로 be동사는 과거형 was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 그들은 공항에서 그녀의 가족을 환영했다.
 14 ① [for → of], '수천의'라는 의미는 thousands of로 표현한다.
 15 ④ 감자는 이상하게 생겼다며 처음에는 환영 받지 못했다.
 16 처음으로 유럽에 가져오게 된 감자에 대한 글이므로 Come to Europe으로 쓴다.
 17 프로이센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⑤ '부족'이 적절하다.
 ① 들뜬 ② 패션, 유행 ③ 성장 ④ 씨앗
 18 ② 동사 want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쓰므로 growing을 to grow로 고쳐 써야 한다.
 19 ⑤ 백성들이 감자에 관심이 없자 왕은 감자를 왕실의 채소라고 이름 짓고 병사들에게 감자밭을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내용이다.
 20 ③ '감자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들어왔을 때'라는 의미가 되도록 'be동사 + 과거형 +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 어순으로 쓴다.
 21 ⑥ 앞뒤의 내용이 이유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므로 '왜냐하면, ~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의 Because가 적절하다.
 ④ 추가적인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또한'이라는 의미의 also가 적절하다.
 22 한 정부 관료가 루이 16세 왕에게 재킷에 감자꽃을 꽃으라고 조언했다.
 23 ④ 가리키는 대상이 복수명사인 potatoes이므로 it이 아니라 them으로 고쳐 써야 한다.
 24 ⑧ '감자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므로 과거형 수동태인 'be동사의 과거형 + 과거분사'의 형태로 쓴다. accept의 과거분사형은 accepted이다.
 ⑨ '가장 ~한 것들 중 하나'라는 의미이므로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명사'의 형태로 쓴다.
 25 사람들이 감자를 좋아하기 시작하여 기르고 먹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소 중 하나라고 했으므로 They는 potatoes를 가리킨다.

Lesson 06 회중점점 모의고사 3회

pp. 80~83

- 01 stole 02 ③ 03 ② 04 ①
 05 ⑤ 06 ① 07 ① 08 ⑤
 09 ③ 10 ③ 11 ④
 12 My father advised me to do homework.
 13 The book was read by many children.
 14 ⑤ 15 (b)ecause 16 ⑤ 17 ①
 18 The king did not give up, and he came up with an idea.
 19 ④ 20 ③ 21 a to grow b to guard
 22 ⑤ 23 ④ 24 ④ 25 ④

- 01 '훔치다'는 steal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과거시제이므로 steal의 과거형인 stole로 써야 한다.
 02 effort는 '노력'이라는 의미의 명사이다. '지역'은 region으로 쓴다.
 03 • 그 군인들은 그 성을 지킨다. (guard: 지키다)
 • 그 경호원은 문 앞에 서 있다. (guard: ㉠ 경호원, 경비)
 04 ①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그것은 좋은 생각이야!'라는 대답은 어색하다.
 ② A: 제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 B: 물론이죠. 무엇인가요?
 ③ A: 지금 당장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B: 물론입니다. 문제 없어요.
 ④ A: 설거지 좀 해 줄 수 있나요?
 B: 죄송하지만 저는 바빠요.
 ⑤ A: 꽃밭에 물 주는 것을 마쳤니?
 B: 거의요.
- 05** 도움을 제안하고 있으며 당근과 감자를 잘라줄 수 있냐는 엄마의 요청에 '물론이죠, 문제 없어요.'라고 대답한 후 ⑤ '지금 당장 학교에 가야해요.'라고 거절의 이유를 말하는 것은 흐름상 어색하다.
- 06** 엄마가 Henry에게 집에 오는 길에 밀가루를 사오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락의 응답인 ① '물론이죠.'가 가장 적절하다.
 ② 행운을 빌어요.
 ③ 특별한 것 없어요.
 ④ 엄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⑤ 지금 당장 집을 청소할 수 있어요.
- 07** Henry는 지금 집에 없어서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 08** 과거시제의 수동태 문장은 「be동사의 과거형 + 과거분사 + by + 행위자」의 어순으로 쓴다.
 • 그 수프는 월요일마다 그에 의해 만들어졌다.
- 09** 동사 want는 5형식 문장에서 「want + 목적어 + to부정사」의 구조로 쓴다.
- 10** ③ 능동문의 목적어 the wall이 주어 자리에 오고 능동문의 주어 The artist가 전치사 by 다음에 위치해야 하므로 The wall was painted by the artist.로 고쳐 써야 한다.
 ① Jane은 사진을 찍었다.
 ② 누군가 자전거를 훔쳐갔다.
 ③ 그 화가가 그 벽을 칠했다.
 ④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다.
 ⑤ 남자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 11** 수동태는 「be동사 + 과거분사」의 형태로 쓰므로 melted로 고쳐 써야 한다.
- 12** advise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쓰므로 「주어 + advise + 목적격보어 (to부정사)」의 형태로 영작할 수 있다.
 •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조언을 하셨다.
 • 그 조언은 숙제를 하라는 것이었다.
- 13** 과거시제 수동태 문장은 「be동사의 과거형 + 과거분사 + by + 행위자」의 형태로 쓰며, read의 과거분사형은 read이다.
- 14** ⑤ 과거시제 수동태 문장은 「be동사의 과거형 + 과거분사 + by + 행위자」의 어순으로 쓰며 동사 grow의 과거분사 형태는 grown이다.
- 15** 빈칸 뒤의 내용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가 가장 적절하다.
- 16** ① 감자가 처음으로 재배된 곳은 어디인가? (→ 안데스산맥 지역)
 ② 왜 스페인 사람들은 감자를 유럽에 가져왔는가? (→ 좋은 식량원이기 때문)
 ③ 왜 사람들은 감자를 재배하고 먹으려 하지 않았는가? (→ 이상하게 생기고, 질병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④ 사람들은 왜 감자를 돼지에게 주었나? (→ 질병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⑤ 그 당시의 감자 맛과 오늘날의 감자 맛은 어떻게 달랐는가? (→ 알 수 없음)
- 17** ① [was happened → happened], happen은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
- 18** '포기하다'는 give up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다'는 come up with an idea로 표현한다.
- 19** 이전에는 감자에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왕이 감자를 왕실의 채소라고 이름 짓고 병사들에게 감자밭을 지키라고 명령하자 감자를 궁금해하여 재배하고 먹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① 화난 → 슬픈

- ② 희망에 찬 → 걱정하는
 ③ 희망에 찬 → 기쁜
 ④ 무관심한 → 궁금해하는
 ⑤ 무관심한 → 놀란
- 20** ③ 왕이 감자를 왕실의 채소라고 이름 지었다.
- 21** ④ 왕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감자를 '재배해' 먹기를 원했다.
 ⑥ 병사들에게 감자밭을 '지킬 것을' 명령했다.
- 22** ⑤ [vegetable → vegetables], '가장 ~한 것 중 하나'는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명사」로 표현한다.
- 23** 이러한 왕실의 패션을 따라 하기 시작한 결과 사람들이 감자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재배해서 먹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인과 관계를 연결하는 ④ '그 결과'가 가장 적절하다.
 ① 또한 ② 비록 ~이지만 ③ 그러나 ⑤ 결론적으로
- 24** 질문: 정부 관료는 루이 16세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
 ① 감자를 받아들이는 것
 ② 감자를 기르고 먹는 것
 ③ 감자꽃을 좀 얻는 것
 ④ 재킷에 감자꽃을 꽂을 것
 ⑤ 프랑스의 성공적인 사례를 배우는 것
- 25** ④ 여왕도 정부 관료의 조언에 따라 감자꽃을 머리에 꽂았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감자꽃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① 프랑스는 루이 16세 왕의 시대에 대기근을 겪었다.
 ② 한 정부 관료는 프로이센이 대기근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했다.
 ③ 루이 16세 왕은 관료의 생각을 따랐다.
 ④ 여왕은 감자꽃을 좋아해서 매일 꽂았다.
 ⑤ 현재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감자를 재배하여 먹는다.

Lesson 07 회중점점 모의고사 1회

pp. 84 ~ 87

- | | | | |
|---|---|---------------------|----------------------|
| 01 ④ | 02 ③ | 03 not | 04 ⑤ |
| 05 ① | 06 ④ | 07 look like | 08 ③ |
| 09 ④ | 10 ⑤ | 11 ② | 12 as well as |
| 13 ① | 14 new something → something new | | |
| 15 ③ | 16 ③ | 17 ⑤ | 18 ② |
| 19 ③ | 20 not only read books but also enjoy coffee | | |
| 21 ⑤ | | | |
| 22 (1) bookstore → bookstores (2) held → were held | | | |
| 23 ① | 24 ④ | | |
| 25 They kept the structure and painted the walls and ceiling with colorful pictures. | | | |

- 01** ④는 '비어 있는 : 가득 찬'이라는 의미로 반의어 관계이고, ①②③⑤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보다 ② 여행 ③ 특별한 ⑤ 예약하다
- 02** ③ look for는 '~을 찾다'는 의미이고, '~처럼 보인다'는 look like로 쓴다.
 ① 정오가 되자 눈이 사라졌다.
 ② 그 축제는 매년 봄에 열린다.
 ③ 우리는 좋은 식당을 찾아 볼 것이다.
 ④ 나는 사과와 바나나 같은 과일을 좋아한다.
 ⑤ 그들은 그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 03** • 그 영화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 그들은 더 이상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 (not ~ anymore: 더 이상 ~ 않는)

- 04 동네에 새로 열린 도서관 건물의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다는 말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고 있으므로 ⑤ ‘그것은 큰 파도처럼 생겼고 발코니가 많아.’가 알맞다.
 ① 그것은 우리 학교 근처에 있어.
 ② 그것은 짧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
 ③ 그것은 매주 월요일마다 문을 닫는 것처럼 보여.
 ④ 고양이가 그려진 노란색 케이스에 들어 있어.
- 05 빈칸 다음의 응답에서 건물 주인이 옛 구조를 그대로 두고 예쁜 색으로 칠했다면서 그 건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말해 주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는 알맞지 않다.
 ② 나는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
 ③ 그것에 대해 더 말해 줘.
 ④ 그것에 대해 더 말해 줄 수 있니?
 ⑤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 줄 수 있나요?
- 06 주어진 문장은 ‘호텔에 대해 더 말해 줄 수 있니?’라는 의미로 무언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표현이므로 북극광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추가 정보를 설명하는 말 앞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07 호텔 객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관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 되어야 하므로, 생김새를 묻는 표현인 What do they look like?로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은 They look like ~로 할 수 있다.
- 08 ① 그들은 어디로 여행을 갈 계획인가? (→ 핀란드)
 ② 호텔 객실은 무엇이 특별한가? (→ 큰 유리 돔으로 되어 있음)
 ③ 호텔 요금은 얼마인가? (→ 알 수 없음)
 ④ 그들이 운이 좋으면 방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 북극광)
 ⑤ 엄마는 마지막에 무엇을 제안하는가? (→ 방 예약하기)
- 09 ④는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였고, ①②③⑤는 ‘~하는 반면에’라는 뜻의 접속사로 쓰였다.
 ① 그녀는 수학을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② Tom은 바쁜 반면에, Jane은 시간 여유가 있다.
 ③ 이 책은 얇은 반면에, 저것은 두껍다.
 ④ 그는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 잠들었다.
 ⑤ 내 친구들은 외출한 반면, 나는 집에 머물렀다.
- 10 ‘A뿐만 아니라 B도’는 「not only A but also B」로 표현하며, 이때 A와 B에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요소가 와야 한다.
- 11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상황과 게임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상황이 서로 대조를 이루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하는 반면에’를 뜻하는 while이다.
 •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반면, 그녀의 오빠는 게임하는 것을 선호한다.
- 12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 B as well as A)
 • 그는 축구를 할 뿐만 아니라 농구도 한다.
- 13 ③ ‘~하는 반면에’를 뜻하는 접속사 while 다음에는 「주어 + 동사」 형태의 절이 와야 하므로 while 뒤에 주어를 추가해야 한다.
 ⑥ [friend → friendly],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하고, be동사의 보어로 형용사가 나와야 하므로 friend를 friendly로 고쳐 써야 한다.
 ④ [was → were], not only A but also B가 주어로 쓰일 경우 B에 수일치를 하므로 복수 주어인 the students에 맞도록 복수 동사인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 14 something과 같이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므로, ‘새로운 어떤 것’은 something new가 되어야 한다.
- 15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 16 오르세 미술관이 원래는 기차역이었었는데, 이후 철거 위기에 놓였었다가 보존되어 미술관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찾은 과정과 건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므로 ㉠ ‘많은 승객들이 근처 도시로 여행하기 위해 그 기차역을 이

용해 왔다.’는 문장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다.

- 17 (C)와 ①②③④는 강조 용법으로 쓰인 재귀대명사이고, ⑤의 himself는 looked at의 목적으로 쓰인 재귀 용법의 재귀대명사이다.
 ① 나는 이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다.
 ② 그는 직접 자전거를 고쳤다.
 ③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④ 선생님이 직접 문을 여셨다.
 ⑤ 그 남자아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았다.
- 18 건물이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용도로 다시 사용되는 것을 원래는 기차역이었다가 미술관이 된 오르세 미술관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오래된 건물에 두 번째 생명 주기’이다.
 ① 전 세계의 기차역들
 ③ 오르세 미술관의 유명한 그림들
 ④ 왜 박물관은 인기 있는 관광지인가
 ⑤ 오래된 건물들: 철거에서 사라짐까지
- 19 ③ 지금까지 또는 특정 시점까지 계속하여 → still (여전히)
 ① 누군가나 무언가를 대신하여 → instead (대신에)
 ② 평화로운 존재와 합의의 상태 → harmony (조화)
 ④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보통의 것과는 다른 → special (특별한)
 ⑤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일이 변하기 전의 초반에 → originally (원래)
- 20 ‘A뿐만 아니라 B도’는 「not only A but also B」로 표현하므로, not only 다음에 ‘책을 읽다’를 뜻하는 read books를 쓰고, but also 다음에 ‘커피를 즐기다’를 뜻하는 enjoy coffee를 써서 문장을 완성한다.
- 21 서점의 방문객들이 책도 읽고, 무대에서 커피를 즐길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⑤ ‘방문객들은 서점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① El Ateneo는 서점이다.
 ② El Ateneo는 문을 열었을 때 극장이었다.
 ③ El Ateneo는 좌석 대신 책으로 채워져 있다.
 ④ 그 서점은 옛 극장의 구조물 일부를 가지고 있다.
- 22 (1) ‘가장 ~한 ...들 중 하나’는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명사」로 표현하므로 bookstore를 bookstores로 고쳐 써야 한다.
 (2) many performances가 열리는 것이므로 held를 ‘개최되었다, 열렸다’를 뜻하는 were held로 고쳐 써야 한다.
- 23 ㉠ 선행사 Anyone은 사람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who나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4 (A)와 ④의 tell은 ‘(정확히) 알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①②③⑤는 모두 ‘말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나는 그에게 내 이름을 말할 것이다.
 ② 그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했다.
 ③ 그녀는 나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④ 너는 이 건물이 학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답을 말했다.
- 25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으며, 사람들은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고 벽과 천장에 화려한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다.
 질문: 사람들은 오래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01 (i)mpressed 02 ④ 03 ④
 04 ④ 05 ③ 06 What does it look like?
 07 ⑤ 08 ⑤ 09 while the boy is short
 10 ③ 11 ⑤ 12 ④
 13 It has kept not only its old, red walls but also its old machines.
 14 ①, ③ 15 ① 16 Second, Buildings
 17 ⑤ → down 18 ④ 19 ⑤
 20 bookstores 21 ⑤
 22 not only read books but also enjoy coffee on the stage
 23 ⑤ 24 a church 25 ①

01 '감명을 주다'는 impress인데 수동태 문장이므로 impressed로 쓴다.

02 present: ㉠ 선물; 현재

- 딸을 위한 그의 선물은 장난감이었다.
-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고 현재를 즐겨라.

03 • 나는 사과, 바나나, 딸기와 같은 과일을 좋아한다. (such as: ~와 같은)
 •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04 빈칸 이후 남자가 시청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고 있으므로 외양을 묻는 질문인 ④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가 가장 적절하다.

- ① 당신은 왜 여기에 있나요?
- ② 당신은 그것을 왜 좋아하나요?
- ③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 ⑤ 당신은 그것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05 남자는 여자에게 시청에 가기 위해서는 직진을 하고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돌라고 말했다.

- ① 여자는 시청에 가고 싶어 한다.
- ② 시청은 여기에서 멀지 않다.
- ③ 여자는 시청에 가기 위해 코너에서 왼쪽으로 돌고 직진해야 한다. (→ 직진 해서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한다.)
- ④ 남자는 여자가 시청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시청은 지붕이 있는 빨간색 건물이다.

06 사람이나 사물의 외양이나 특징을 물을 때는 What does ~ look like?로 표현한다.

07 소용이가 주말에 여행을 갔지만 누구와 같이 갔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08 ⑤는 앞뒤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접속사 and가 적절하고, ①②③④는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 ① 코끼리는 큰 반면에 쥐는 작다.
- ② 어제 비가 내린 반면에 오늘은 날이 맑다.
- ③ 나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 ④ 내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 ⑤ 그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나 역시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09 접속사 while은 '~하는 반면에'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로 「while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10 ①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민지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한다.
 ② 나는 빵을 좋아하는 반면에 민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③ 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는 반면에 민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 나는 빵을 좋아함)
 ④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수학도 좋아한다.
 ⑤ 민지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좋아한다.

11 while은 대조적인 상황을 연결하므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⑤는 적

절하지 않다.

① 그는 춤을 출 뿐만 아니라 노래도 한다.

② 도시는 바쁜 반면에 시골은 평화롭다.

③ 마을은 조용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

④ 그녀는 영어가 흥미로운 반면에 스페인어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⑤ 아빠가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엄마도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12 ㉠ '~이지만'이라는 의미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While이 적절하다.

㉢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13 '간직하고 있다'는 현재완료시제인 「have + 과거분사」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어 It에 맞도록 has kept로 써야 한다. 'A뿐만 아니라 B도'는 not only A but also B로 표현한다.

14 너무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되거나 새로운 무언가로 바뀌기도 하며 이는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보여준다는 내용이다.

15 너무 오래된 건물들은 새로운 무언가로 바뀌기도 한다는 맥락에서 이어지므로 ① '새로운'이 가장 적절하다.

② 오래된 ③ 첫 번째의 ④ 두 번째의 ⑤ 아름다운

16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얻어 무언가로 바뀌기도 한다는 내용으므로 '옛 건물들의 두 번째 삶'이라는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second와 buildings를 쓴다.

17 ⑤ '철거하다'의 의미는 tear down으로 쓴다.

18 처음에는 오래된 기차역이었던 오르세 박물관을 철거하려고 했었다는 내용이므로 it이 가리키는 것은 ④ '기차역'이다.

① 기차 ② 도시 ③ 큰 시계 ⑤ 둥근 지붕

19 ① 유명한 예술가들의 많은 그림들로 유명하다.

②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아름다운 건물에 감명받는다.

③ 처음에는 미술관이 아니었다.

④ 둥근 지붕과 큰 시계가 있다.

⑤ 지금은 옛 기차역의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 둥근 지붕과 커다란 시계가 오르세 박물관이 예전에 기차역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임)

20 El Ateneo가 처음에는 극장이었지만 지금은 서점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가장 ~한 것 중 하나'라는 표현은 「one of + the + 복수명사」의 형태로 쓰므로 bookstores로 써야 한다.

21 El Ateneo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들 중 하나라고 소개한 후 (C) 그 건물이 처음에 극장이었지만 (B) 이제는 좌석들은 사라지고 대신 그 공간을 책들이 채운다는 내용이 나오고 (A) 그 서점에는 여전히 무대와 발코니가 있다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22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로 이때 A와 B의 형태는 같아야 한다. 따라서 A에는 read books, B에는 enjoy coffee를 쓰고 뒤에 on the stage를 써서 영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23 not only A but also B는 B에 수일치를 하므로 복수 주어인 art lovers에 맞도록 복수 동사인 enjoy로 고쳐 써야 한다.

24 사람들이 원래는 교회(a church)였던 건물을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이다.

25 ① 카오스 신전을 누가 지었는가? (→ 알 수 없음)

② 카오스 신전은 새로 바뀌어지기 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 교회로)

③ 카오스 신전을 새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 2015년)

④ 한 무리의 사람들은 카오스 신전을 어떻게 새로 바꾸었는가? (→ 건물의 구조는 유지하고 벽과 천장을 다채로운 그림들로 채색함)

⑤ 누가 새로 바뀌어진 건물을 좋아하는가? (→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술 애호가들도)

- 01 performances, theater 02 ① 03 ②
 04 ② 05 ⑤ 06 ④ 07 ④
 08 ③ 09 ⑤ 10 ① 11 ④
 12 My teacher likes cats, while I like dogs.
 13 He is not only a good soccer player but also a good dancer.
 14 ② 15 ④
 16 a wonderful harmony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17 ① 18 ④ 19 (A) originally (B) station
 20 ⑤
 21 not only read books but also enjoy coffee on the stage
 22 ⑤ 23 ① 24 ③
 25 (A) a church (B) skate park

- 01 performance: 공연 theater: 극장
 02 ① new는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고, ②③④⑤는 모두 명사이다.
 ② 무대 ③ 돔 ④ 천장 ⑤ 구조
 03 ② '현재 이전의 시간'은 'past(과거)'의 영영풀이이다. renew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① 지붕: 건물의 위쪽을 덮는 것
 ③ 대신에: 누군가나 무언가를 대신하여
 ④ 자취, 흔적: 이전에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작은 표시나 흔적
 ⑤ 파괴하다: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도록 무언가를 완전히 부수다
 04 새로운 쇼팽물이 오픈한다는 것을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 (A) 아니라고 답하며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한 후 (C) 오래된 학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쇼팽물을 세울 것이라고 추가 설명이 이어지고 (B) 이해한 내용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05 A가 생각하고 있는 건물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맞히던 도중 ⑤ '나는 아침 우유 한 잔을 좋아한다.'라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흐름상 어색하다.
 06 빈칸 이후에 남자가 호텔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④ '그것의 무엇이 좋은데?'라는 질문이 가장 적절하다.
 ① 모르겠어.
 ②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③ 너 왜 우울해 보이니?
 ⑤ 어디에서 그 방을 예약했니?
 07 운이 좋으면 북극광을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④ '그들은 언제나 북극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여자와 소년은 핀란드로 여행을 갈 것이다.
 ② 소년은 호텔이 독특하게 디자인되었다고 생각한다.
 ③ 호텔 객실은 큰 유리 돔처럼 생겼다.
 ⑤ 여자는 그 방을 예약하기를 원한다.
 08 • 내가 공부하는 동안, 나의 엄마는 자고 있었다. (~하는 동안에)
 • 그녀는 일찍 일어나는 반면, 그녀의 남편은 늦게 일어난다. (~하는 반면에)
 09 'A뿐만 아니라 B도'는 not only A but also B로 표현하며, 이때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
 10 ① 두 개의 절이 대조되는 내용이므로 '반면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Because는 '~ 때문에'라는 뜻이므로 어법상 옳지 않다.
 11 ④ [taking → took],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와 B의 형태는 동일해야 한다.
 ① 예술가는 춤을 출 뿐만 아니라 노래도 한다.
 ② 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말한다.
 ③ Janet은 사과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좋아한다.

- ④ 우리는 아이들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어주었다.
 ⑤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정기적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일찍 들지도 않는다.
 12 두 개의 문장이 상반되므로 '~하는 반면에'를 의미하는 접속사 while을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 선생님은 고양이들을 좋아한다.
 • 나는 강아지들을 좋아한다.
 → 선생님은 고양이들을 좋아하는 반면 나는 강아지들을 좋아한다.
 13 'A뿐만 아니라 B도'는 not only A but also B로 쓰며, 이때 A와 B의 형태는 같아야 한다.
 14 옛 건물들이 새롭게 변화된 과정에 대한 내용이므로 ② '오래된'이 가장 적절하다.
 ① 큰 ③ 높은 ④ 작은 ⑤ 많은
 15 ④ 두 문장이 대조되는 내용이므로 '~하는 반면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While이 적절하다.
 16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17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오래된 기차역이었으나 미술관으로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내용이므로 ①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다.
 ② 철거되고 다시 지어졌다
 ③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다
 ④ 다시 운이 좋아서 삶을 구하게 되었다
 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의 아름다운 건물들로 깊은 인상을 주었다
 18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기차역이었는데, 기차역으로서의 삶은 길지 않았다고 했다.
 19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originally) 기차역(station)으로 지어졌으나 나중에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20 ⑧ 과거형 수동태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동사 hold의 과거분사형인 held가 적절하다.
 ⑥ 좌석들은 없어졌지만 대신에 그 자리를 책이 채웠다는 내용이므로 문맥상 instead(대신에)가 가장 적절하다.
 21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하고, 조동사 can 뒤에 동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books 앞에 read를, coffee 앞에 enjoy를 넣어 문장을 완성시켜야 한다.
 22 서점은 극장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무대와 발코니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질문: 서점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① 새로운 무대
 ② 책장들
 ③ 새로운 발코니들
 ④ 극장의 좌석들
 ⑤ 예전 극장의 흔적들
 23 ① 스케이트보드장에서 교회였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hardly(거의 ~않는)를 easily(쉽게)로 고쳐 써야 한다.
 24 주어진 문장은 '그들은 건물의 구조를 유지하고 벽과 천장을 다채로운 그림들로 그렸다'는 내용으로 여기서 They는 a group of people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㉔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5 카오스 신전은 과거에 (A)교회(a church)였지만 현재는 (B)스케이트보드장(skate park)이다.

- 01 ③ 02 ① 03 to 04 ⑤
 05 ⑤ 06 ⑥ - ④ - ③ - ② 07 ⑤
 08 ② 09 ⑤ 10 since 11 ③
 12 ⑤ 13 ②
 14 When we have a problem, we often wonder what the solution is. 15 ④ 16 ④ 17 ③
 18 ④ caretakers ④ birds 19 ⑤
 20 why birds liked to come to this building
 21 ⑤ 22 ③ 23 ② 24 solution
 25 Because the lights were turned on at sunset.

- 01 droppings는 ‘(새·짐승의) 똥’이라는 의미이므로 ③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작은 배설물’이 영영풀이로 적절하다.
 • 바닥은 새똥으로 뒤덮여 있었다.
 ① 나라나 단체의 지도자 → president (대통령)
 ② 꿀을 얻기 위해 벌을 키우는 활동 → beekeeping (양봉)
 ④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 → trash (쓰레기)
 ⑤ 앞에 있는 것의 이미지를 비춰 보여 주는 유리 조각 → mirror (거울)
- 02 ① honor ((남에게) 경의를 표하다)는 빈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그는 곤충 전문가이다. (② expert: 전문가)
 • 나는 그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⑤ completely: 완전히)
 • 그 계획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④ simple: 간단한)
 •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 단어들을 반복하라고 요청하셨다. (③ repeat: 반복하다)
- 03 • 우리는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다. (listen to: ~을 듣다)
 • 이 실수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lead to: ~로 이어지다)
- 04 역사 시험이 자신에게도 어려웠다고 했고, 빈칸 다음에 내일 다른 시험이 있으니 지금은 걱정하지 말자고 한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⑤ ‘나는 시험 결과가 정말 걱정돼.’가 알맞다.
 ① 나는 수학보다 역사를 더 좋아해.
 ② 나는 내일 그 시험을 다시 볼 거야.
 ③ 나는 어제 그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
 ④ 오늘 교실은 매우 조용했어.
- 05 ⑤ 남동생이 밤새 비디오 게임을 해서 낮 동안 항상 피곤해한다는 A의 말에 엄마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그가 엄마의 말을 들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① A: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B: 어제 축구를 하는 동안에 다쳤어요.
 ② A: 모두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이 돼.
 B: 걱정 마.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해.
 ③ A: 사람들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너무 빠르게 타.
 B: 맞아. 나는 안전이 걱정돼.
 ④ A: 가족들 앞에서 연습하는 것이 어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B: 알겠어, 한번 해 볼게. 고마워.
- 06 ⑥ 너 걱정이 있어 보여. 무슨 일 있니, 준호야? - ⑥ 새 학년이 너무 걱정돼.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을지 모르겠어. - ⑥ 왜 그렇게 생각해? - ⑥ 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해.
- 07 ⑥는 걱정이 있어 보이는 Chloe에게 괜찮은지 묻는 질문이므로 안부를 묻는 표현과 바뀌 쓸 수 있다.
 ① 무슨 일이니? ② 괜찮니? ③ 모든 것이 괜찮니?
 ④ 기분 괜찮니? ⑤ 그것은 어떻게 생겼니?
- 08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②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09 시에 고장 난 가로등을 알리는 게 좋겠다는 Jordan의 말에 Chloe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므로, ⑤ ‘Chloe는 이미 고장 난 가로등을 시에 신고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Chloe는 밤에 혼자 집에 걸어가는 것이 걱정된다.
 ② 가로등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다.
 ③ Jordan은 “Safe Walk Home Service” 앱을 사용하라고 제안한다.
 ④ Chloe가 그 앱을 사용하면 도우미가 와서 함께 집까지 걸어간다.
- 10 ‘~하기 때문에’와 ‘~한 이후로’라는 의미의 접속사는 since이다.
- 11 동사 explained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이므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한다. 시제는 과거이다.
 • 그는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했다.
- 12 ①②③④는 모두 ‘~하기 때문에, ~하므로’를 뜻하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지만 ⑤는 ‘~한 이후로’를 뜻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다.
 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머물렀다.
 ②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③ 네가 여기 있으니 회의를 시작하자.
 ④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다.
 ⑤ 그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기분(상태)이 더 좋아졌다.
- 13 think, believe 등과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인 의문문에서 간접의문문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 간접의문문의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와야 하므로 ②는 When do you think the train will arrive?가 되어야 한다.
 ① 너는 그녀가 어떤 책을 골랐다고 믿니?
 ② 너는 기차가 언제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③ 우리는 누가 창문을 켜는지 모른다.
 ④ 네 부모님이 어디에 사는지 말해 줄 수 있니?
 ⑤ 나는 그녀가 그 쿠키를 직접 만들었는지 몰랐다.
- 14 ‘~할 때’를 뜻하는 접속사 when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앞에 오도록 when we have a problem을 쓰고 콤마를 찍은 후에 빈도부사 often을 일반동사 wonder 앞에 쓰고, wonder의 목적어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간접의문문 what the solution is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15 ④ [them → themselves], asked의 간접목적어로 주어 They와 동일하므로 재귀 용법의 재귀대명사 themselves로 고쳐 써야 한다.
- 16 이어지는 문장에서 건물 관리인들이 건물을 청소하기 위해 강한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Jefferson 기념관 건물이 손상되었다고 이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왜’를 뜻하는 의문사 Why가 알맞다.
- 17 건물 관리인들은 건물을 청소하기 위해 강한 세제를 사용했다고 하였으므로 ③ ‘건물 관리인들은 순한 세제를 사용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사람들은 “왜?”라고 물음으로써 해결책을 찾는다.
 ② Jefferson 기념관은 Thomas Jefferson을 기린다.
 ④ 건물 관리인들은 왜 건물이 손상되었는지 물었다.
 ⑤ 이야기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 18 ④ 강한 세제를 새의 배설물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건물 관리인들(caretakers)’이다.
 ④ 거미를 먹기 위해 이 건물로 오는 것은 ‘새들(birds)’이다.
- 19 ⑥와 ⑤의 clean은 ‘청소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고, ①②③④의 clean은 모두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였다.
 ① 그 물은 깨끗해 보인다.
 ② 그 방은 지금 깨끗하다.
 ③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세요.
 ④ 그녀는 자신의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우리는 오늘 교실을 청소해야 한다.
- 20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간접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데,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liked로 써야 한다.

- 21 ① 관리인들은 왜 강한 세제를 사용했는가? (→ 새들의 배설물을 치우기 위해)
 ② 새들은 왜 그 건물에 왔는가? (→ 거미들을 먹기 위해)
 ③ 거미들은 왜 그 건물에 왔는가? (→ 벌레들을 먹기 위해)
 ④ 새들은 그 건물에서 무엇을 먹었는가? (→ 거미)
 ⑤ 관리인들은 얼마나 자주 그 건물을 청소했는가? (→ 알 수 없음)
- 22 be drawn to: ~에 끌리다
- 23 문맥상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접속사 Since가 적절하다.
- 24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solution (해결책)
- 25 많은 벌레가 건물로 오는 이유는 벌레들이 가장 활발한 해 질 녘에 건물에 불을 켜기 때문에 그 벌레들이 불빛에 이끌려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질문: 왜 많은 벌레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가?

Lesson 08 회중점점 모의고사 2회

pp. 100~103

- 01 ask, for 02 ⑤ 03 ⑤ 04 ④
 05 ⑤ 06 I'm worried about walking home at night.
 07 ⑤ 08 ①
 09 since I had to go to visit my grandmother
 10 ① 11 ①, ②
 12 why you go to the gym every day
 13 ② 14 ③
 15 They asked themselves a question why this building was so damaged.
 16 ③ 17 ⑤ 18 birds 19 ②
 20 the building caretakers turn on the lights at sunset
 21 ④ 22 Since 23 ⑤
 24 |예시답안|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 불을 켜는 것 25 ⑤

- 01 ask A for B: A에게 B를 요청하다
- 02 place: ㉠ 두다, 놓다
 • 유리 꽃병을 선반 위에 조심히 두세요.
 • 들어가기 전에 사물함 안에 가방을 두어야 합니다.
- 03 ㉢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작은 배설물 → droppings (똥)
 ㉤ 세부 사항이나 이유를 제시하여 무언가를 확실하게 만들다 → explain (설명하다)
- 04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 안전하게 걸을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④ '난 공원에서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① 그거 말이 된다.
 ② 그거 흥미롭게 들린다.
 ③ 그들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나는 행운을 빌어 줄게.
- 05 ①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② 소녀는 공원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없다.
 ③ 소년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④ 소녀는 공원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⑤ 소년은 소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함)
- 06 '나는 ~이 걱정돼'는 I'm worried about ~으로 표현한다.
- 07 주어진 문장은 '나는 그들이 그것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해.'라는 의미이므로 고장 난 가로등을 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 뒤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08 ①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but이 적절하고, ②③④⑤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since가 적절하다.
 ① 나는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 떨어졌다.

- ② 나는 땅콩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 대신 드셨다.
 ③ 바깥은 너무 춥기 때문에 너는 코트를 입을 필요가 있다.
 ④ Jane은 시험을 쳐야 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일찍 학교에 갔다.
 ⑤ 나는 20분 전에 막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부르다.
- 09 '~하기 때문에'는 접속사 since로 표현할 수 있다.
- 10 ① [why is it wrong → why it is wrong],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① 그는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물었다.
 ② 그가 어떻게 학교에 가는지 알고 있니?
 ③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 말해 줄래?
 ④ 그녀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했다.
 ⑤ 교수는 그 학생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 11 ① 그녀는 모바일 게임을 하므로 밤 늦게 잔다.
 ② 그 학생은 동물을 사랑하고 수의사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영상을 보았다.
 ③ 그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혼자 수영을 가고 싶어 한다.
 ④ 그녀는 커피를 싫어하는 반면에 커피를 마시고 나면 잠을 잘 수 없다.
 ⑤ 그녀는 아침에 기분이 좋으므로 친구를 만난다.
- 12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 너는 왜 체육관에 매일 가니?
- 13 ㉢ 이유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의 since나 because가 적절하다.
 ㉤ 수업 중 왜 피곤한지 이해했다는 내용이므로 이유를 설명하는 의문사 why가 적절하다.
- 14 '왜?'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③ '해결책'이 가장 적절하다.
 ① 주제 ② 통찰력 ④ 질문 ⑤ 가능성
- 15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 16 제퍼슨 기념관의 관리인들이 건물에 많은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 17 주어진 문장은 "이것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인 '그렇다면 왜 거미들은 이 건물에 오고 싶어 할까?'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이므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거미들이 벌레를 먹으러 건물에 온다는 내용 전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8 바로 앞 문장에서 왜 새들이 이 건물에 오는지 질문했다는 내용이 언급되므로 they는 복수형 명사 birds를 지칭한다.
- 19 ① 건물 관리인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
 ② 건물 관리인들이 건물을 청소하는 데 강한 세제 사용을 피할 것을 다짐했다. (→ 알 수 없음)
 ③ 건물 관리인들은 건물에서 새의 똥을 청소했다.
 ④ 건물 관리인들은 새들이 왜 건물로 오는지 궁금했다.
 ⑤ 거미들은 벌레들을 먹기 위해 건물로 왔다.
- 20 전문가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들이 해 질 녘에 불을 켜기 때문에 벌레들이 불빛에 이끌려 건물에 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21 (C) 전문가가 왜 많은 벌레들이 건물에 오는지 설명하고 (A)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는 설명이 이어진 후 (B) 해결책은 매우 간단했다는 식의 내용 흐름이 자연스럽다.
- 22 이유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인과 관계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 since가 적절하다.
- 23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쓰고, '왜'를 의미하는 의문사는 why로 쓴다.
- 24 ㉢ 앞에서 완전히 어두워진 후 불빛을 켜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 25 윗글의 글쓴이는 편지를 받는 박사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⑤ '만족한' 심정임을 알 수 있다.
 ① 속상한 ② 두려운 ③ 긴장한 ④ 질투하는

- 01 expert, explain 02 observe 03 ②
 04 ⑤ 05 ③ 06 I'm worried about my foot.
 07 ① 08 ⑤ 09 ② 10 ④
 11 My mom's car is broken since a bird hit her car.
 12 ④ 13 I can understand why my friend cried.
 14 ④ 15 ② 16 (A) (c), (B) (a), (C) (b)
 17 ④ 18 ③
 19 This led to another interesting question why spiders like to come to this building, then.
 20 ⑤
 21 [예시답안] 거미들, 새, 배설물의 수가 적어졌다. 또한 강한 세제를 쓰지 않아도 되기에 건물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았다.
 22 ① 23 ② 24 ③ 25 ④

01 expert: 전문가 explain: 설명하다

02 observe: ㉠ 관찰하다

- 나는 밤하늘에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싶다.
- 과학 시간에 우리는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해야 한다.

03 ㉡ repeat: ㉡ 반복하다

- ㉢ stop ... from ~ing ...가 ~하는 것을 막다
- 아이들이 교실 불을 켜다. 그때, 한 소년이 들어와서 불을 켜다. 그들은 오랫동안 불을 켜고 끄는 것을 반복했다.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그들이 불을 가지고 노는 것을 못 하게 막았다.

04 I'm worried about ~은 '나는 ~이 걱정돼'라는 의미로 자신의 걱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05 소년이 소녀에게 왜 걱정이 되냐고 묻는 질문에 답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B)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나오고, (A)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그러면 가족들 앞에서 연습하는 것이 어때?'로 이어진 후 (C) 이 해결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06 '나는 ~이 걱정된다'라는 의미로 걱정을 묘사하는 표현은 I'm worried about ~으로 쓴다.

07 남자가 어제 축구를 하다가 발을 다쳤다고 했다.

- ① 남자는 어제 축구를 했다.
- ② 여자는 어제 그녀의 발을 다쳤다.
- ③ 남자는 여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 ④ 남자는 여자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
- ⑤ 남자는 여자의 발을 눌렀다.

08 since는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므로 because와 바꿔 쓸 수 있다.

- 나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 그녀는 파티에 가야 했기 때문에 옷을 몇 벌 샀다.

09 ㉡ [when is her birthday → when her birthday is],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 ① 나는 그가 자전거를 어떻게 수리했는지 궁금하다.
- ② 그녀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니?
- ③ 나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 ④ 그것을 왜 거기에 두었는지 말해 줄래?
- ⑤ 아빠는 나에게 누가 전등을 발명했는지 설명해 주셨다.

10 글쓰기가 작년부터 종종 피곤했고 결국, 충분히 잠을 못 자서 피곤했고, 그것은 공부가 끝난 뒤 쉬고 싶어서 밤늦게 영상을 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하기 때문에, ~이후로'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 since가 맞았다.

11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since를 이용하여 '새 한 마리가 엄마의 차를 쳤다'는 원인과 '엄마의 차가 망가졌다'는 결과를 연결하여 한 문장을

로 나타낼 수 있다.

12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13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쓰고, '왜'라는 의미는 의문사 why로 표현한다.

14 ④ 제퍼슨 기념관은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다.

15 '왜'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퍼슨 기념관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려고 한다.

- 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 중 하나를 보여 주는 제퍼슨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
- ② 이유를 묻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제퍼슨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
- ③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 ④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이야기
- ⑤ 제퍼슨 기념관의 예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질문을 이끌어내는 방법

16 (a) 우리는 왜 강한 세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b) 새들은 왜 이 건물로 오는 것을 좋아하는가?

(c)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손상되는가?

17 질문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의미가 적절하다.

- ① 가르쳤다 ② 의심했다 ③ 믿었다
- ④ 깨달았다 ⑤ 알렸다

18 ① 건물이나 장소를 관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 → caretaker (관리인)

② 나라나 단체의 지도자 → president (대통령)

③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작은 배설물 → droppings (똥)

④ 어떤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 expert (전문가)

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 → trash (쓰레기)

19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20 건물 관리인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1 (A) 이것이 벌레가 오는 것을 막았다.

22 ① 건물 관리인들은 전문가에게 질문을 했다.

② 전문가는 건물 관리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③ 벌레들은 해 질 녘보다 일출 때 더 활발하다.

④ 건물의 불빛들은 해가 진 후에 꺼졌다.

⑤ 그 건물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23 ② [were come → were coming], 과거진행형은 「be동사 + -ing」의 형태로 쓴다.

24 ㉢ 불빛이 벌레들(bugs)을 이끌어 벌레들이 건물에 많이 모였다고 했으므로 복수형 대명사 them이 적절하다.

㉤ 박사님의 조언을 받고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 불을 켜고 했으므로 예전과는 달리 '지금(Now)' 불을 켜는 맥락이 적절하다.

25 '당신의 도움 덕분에 왜 이렇게 많은 벌레들이 제퍼슨 기념관에 오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2학기 모의고사

pp. 108 ~ 111

-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③ 06 ㉢ - ㉤ - ㉢ - ㉣ - ㉢
 07 I'm worried about 08 ④ 09 ⑤
 10 ① 11 The coach did not choose us for the team.
 12 ② 13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bank is?
 14 ③ 15 of 16 ④ 17 ③
 18 ③ 19 ㉢ Spanish people ㉣ potatoes
 20 ② 21 ④ 22 ⑤ 23 ④
 24 ③ 25 ㉢ solving ㉣ coming

01 ④ 행사, 모임, 수업 또는 활동에 참석하다 → attend (참가하다)

- ① 노를 젓다 ② 따라 하다
③ 흔들리다 ⑤ 추천하다
- 02** ⑤의 order는 '명령하다'라는 의미이고, ①②③④는 모두 '주문하다'라는 의미이다.
① 나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② 우리는 온라인으로 책을 몇 권 주문했다.
③ 그녀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④ 그들은 팀을 위한 새 유니폼을 주문했다.
⑤ 그는 우리에게 즉시 방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 03** ③ 인기 있는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에 또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묻는 것은 어색하다.
① A: 지하철역이 여기에서 먼가요?
B: 전혀요. 여기서 걸어서 10분입니다.
② A: 해물 파스타는 어때? 매우 유명해.
B: 좋아, 그걸로 할게.
③ A: 여기서 유명한 요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B: 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④ A: 시티투어 버스를 타는 것이 어때? 탑승 한 번으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어.
B: 그거 좋다. 고마워!
⑤ A: 가장 가까운 지역 시장에 어떻게 가나요?
B: 어디 봅시다. 세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공원 옆에 있어요.
- 04** 문맥상 빈칸 ⑥에는 '그 당시에'라는 의미의 at that time이 적절하다.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라는 의미이다.
• 불 좀 켜 주세요. (turn on: 불을 켜다)
• 그 당시 나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 이 도시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로 유명하다)
• 그들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tear down: 허물다, 철거하다)
• 그녀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keep: ~을 유지하다)
- 05** 집 청소를 해 달라는 엄마의 부탁에 현재 집에 없다고 답하고 있으므로 ③에는 거절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06** ⑥ 실례합니다, 저는 시청을 찾고 있어요. - ⑥ 시청이요? 그것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곧장 가다가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것을 쉽게 찾을 거예요. - ⑥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 ④ 녹색 지붕이 있는 빨간 건물이에요. - ⑥ 감사합니다!
- 07** '나는 ~이 걱정돼'는 I'm worried about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08** Chloe가 몇몇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가로등이 고장 난 이유는 알 수 없다.
① Chloe는 왜 걱정이 있어 보이는가? (→ 집에 혼자 걸어가는 것이 걱정돼서)
② Jordan은 Chloe에게 무엇을 사용하라고 제안하는가? (→ Safe Walk Home Service 앱 사용)
③ Chloe가 Safe Walk Home Service 앱을 사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도우미가 와서 집까지 함께 가 줌)
④ 왜 몇몇 가로등이 고장 난 있는가? (→ 알 수 없음)
⑤ Jordan은 Chloe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조언하는가? (→ 고장 난 가로등을 시에 보고할 것)
- 09** 목적격보어 자리에 현재분사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지각동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advise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쓰므로 적절하지 않다.
- 10** ①의 that은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②③④⑤는 모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① 나는 캐나다에 사는 친구가 있다.
② 우리가 들은 그 노래는 아름다웠다.
③ 이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④ 그녀는 어머니가 사 준 드레스를 입었다.

- ⑤ 선생님은 모두가 좋아하는 그 학생을 칭찬했다.
- 11** 수동태 문장의 주어(We)가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us)가 되고, by 다음에 나오는 행위자(the coach)를 능동태 문장의 주어로 하여 바꿔 쓸 수 있다. 과거시제 부정문이므로 「did not + 동사원형」인 did not choose가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코치에 의해 팀에 선발되지 않았다.
- 12** ④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의 A와 B는 형태와 역할이 동일해야 하므로 to clean과 병렬 구조를 이루는 to paint가 적절하다.
⑥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 B의 수와 인칭에 동사를 일치시키므로 am이 적절하다.
• 그들은 방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벽을 칠하기로 결정했다.
•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 여행에 대해 신이 난다.
- 13**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의 간접의문문으로 바꿔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 14** ④ [who → which 또는 that], 선행사가 사물인 many famous works of art이므로 which나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5** (A) full of: ~로 가득 찬
(B) 「one of + 복수명사」: ~ 중 하나
- 16** ④ 글쓰는 Vincent van Gogh의 그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 17** ⑥와 ③의 by는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다.
① 그들은 버스로 여행했다. (교통수단: ~, ~을 타고)
② 그녀는 창문 옆에 앉았다. (장소: ~ 옆에)
③ 그 편지는 Tom에 의해 쓰였다. (수동태 행위자)
④ 그는 오후 7시까지 숙제를 끝냈다. (시간: ~까지)
⑤ 그녀는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배웠다. (방법: ~함으로써)
- 18** 주어진 문장은 '하지만 감자는 처음에 환영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스페인 사람들이 좋은 식량원으로서 감자를 유럽으로 들여왔다는 내용과 사람들은 감자가 이상하게 생겨서 그것을 재배해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내용 사이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9** ④ 16세기에 안데스산맥 지역을 장악하고 처음 감자에 대해 알게 된 '스페인 사람들(Spanish people)'을 가리킨다.
⑥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여서 재배해서 먹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감자들(potatoes)'을 가리킨다.
- 20** ⑥ While은 '~하는 반면에'를 뜻하는 대조의 접속사로 쓰였다.
- 21** 빈칸 뒤의 문장에서 바로 그 건물 자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빈칸 앞의 the beautiful building을 강조하는 재귀대명사 itself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2** 동근 지붕과 커다란 시계가 여전히 옛 기차역의 흔적을 보여 준다고 했으므로 ⑤ '그 건물은 옛 기차역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잃었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몇몇 오래된 건물들은 너무 오래되면 철거된다.
② 오르세 미술관은 Van Gogh나 Monet와 같은 화가들의 그림으로 유명하다.
③ 오르세 미술관은 원래 기차역으로 지어졌다.
④ 시는 1970년에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었다.
- 23** 밑줄 친 ④ Since는 '~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으므로, Because와 바꿔 쓸 수 있다.
- 24** '왜 이렇게 많은 벌레가 이 건물에 올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으므로, 빈칸 ⑥에는 ③ '어떤 주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expert(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solution (해결책)
② 꿀을 얻기 위해 벌을 기르는 활동 → beekeeping (양봉)
④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작은 배설물 → droppings ((새 · 짐승의) 똥)
⑤ 앞에 있는 것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유리 조각 → mirror (거울)
- 25** in이나 from과 같이 전치사 다음에 오는 동사는 동명사 형태가 되어야 한다.